

워크(Woke) 혁명과 서구 문명의 몰락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며, 비정한 세계의 마음이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상을 필요로 하는 처지를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가 후광으로 둘러싼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맹아적 비판이다. (1)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이 글은 곧 출간될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의 마지막 인쇄본 호(“편집자의 글” 참조)에서 발췌·수정한 것으로, 분명 가장 중요한 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워크 세계관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유대·기독교 윤리에 맞선 봉기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음흉한 반란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서구 문명의 영혼을 상대로 벌어지는 워크 세계관 전쟁을 이해하는 데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계관.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워크를 “중요한 사회적 사실과 문제들(특히 인종 정의와 사회 정의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외연적 의미에서 이 정의는 타당하고 옳다. 그러나 메리엄웹스터와 신마르크스주의 혁명가들이 인종 정의와 사회 정의의 문제들에 깨어 있다는 말로 뜻하는 바는 진정한 대각성 운동의 긍정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

더글러스 그루투스(Douglas Groothuis)가 “비판적 인종 이론: 개론과 비평”이라는 글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위크 정통주의에 따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인종차별 국가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미국의 헌법이 “반인종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유재산권 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장이 지닌 긍정적 가능성을 존중하지 않은 채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강제된다”. 더욱이 위크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백인들, 특히 이성애자 백인 남성들이 억압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다고 주장되는 억압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젠더주의이다.

환상에 사로잡힌 위크 세계관에서는 소년이 소녀로, 소녀가 소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위크주의의 신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것을 가져다가 다시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과적 만행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부 수술과 하부 수술을 시행한다. 위크식 언어로 가려진 불편한 진실은 이 사이버 신들이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성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과, “인간의 뇌는 성별에 따라 유형화된 기관이다”라는 것과, 남성과 여성의 뇌가 연결되는 방식에는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3)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인간성을 공격하다”에서 제이 리처즈(Jay Richards)는 우리의 몸이 신체적 생식을 위해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은 본성상 신체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단지 물질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영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절반은 물질적이고 절반은 영적인 것도 아니다. 동시에 둘 다이다.” “우리는 직립보행하는 유인원도 아니고 고깃덩어리 옷을 입은 유령도 아니다. 우리는 본성상 몸을 지닌 인격체이다”. 설계에 따라 몸/영혼의 통일체로 존재한다.

철학적 자연주의자들은 비물질적 영혼의 존재를 단호히 부인하지만, 문화적 서사들은 계속해서 그 실재를 말로는 인정한다. 그 증거로, 크게 칭송받던 올림픽 슈퍼스타 브루스 제너(Bruce Jenner)는 ABC의 다이앤 소여(Diane Sawyer)에게 “그는, 영혼으로는,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그는 남성의 몸을 자신이 여성이라고 인식한 영혼에 맞추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 벤저민 카베(Benjamin Cabe)가 “속사람과 겉사람: 역사적 기독교 인간론은 트랜스젠더주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설명하듯이, “브루스는 이름을 케이틀린으로 바꾸고, she/her 대명사를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사회적 전환이라고 한다), 호르몬 치료(에스트로젠)를 시작한 뒤, 결국 완전한 외형적 전환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일련의 중대한 수술을 받는 것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음경절제술, 고환절제술(고환 제거), 유방확대술, 질성형술.” 이 모든 것은 그의

“원래 남성의 몸을 그의…여성 영혼에 맞는 여성의 몸에 가까운 형태로” “변형”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여성의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베가 설명하듯이, “영혼 자체에는 성별이 없다.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룬 존재로서, 성을 지닌 몸과 성별이 없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기독교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역사적 기독교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의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비물질적인 측면이 어떤 성별을 지닌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며 – 하물며 몸과 반대되는 생물학적 성이나 젠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존재론적으로, 곧 본성이나 본질의 측면에서 볼 때, 여자의 몸에 갇힌 남자이거나 그 반대인 것은 불가능하다”.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의 이번 호를 읽을 때 – 그리고 바라건대 다시 읽을 때 –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워크 세계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마르크스주의적 억압의 이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과거의 반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핵심 표적이다. 셋째, 극단주의가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되었다.

억압. 먼저, 억압받는 자/억압하는 자의 이분법에 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주의 혁명에서 사회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었다: 부르주아 억압자들과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였다.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에 따르면, 부르주아 억압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행복이라는 환상의 감옥에 가두기 위해 은밀하게 종교를 이용했다. 그는 독기 어린 경멸을 담아 종교를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라고 불렀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4) 그리고 나서 악의적으로 종교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이 마르크스주의 명제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데 몰두하고 있다.

노엘 메링(Noelle Mering)이 “워크주의의 세 가지 교리: 권위주의로 가는 길”에서 설명하듯이, 워크하다는 것은 시스젠더 규범성과 같은 외부의 억압뿐 아니라 “자의적인 도덕법의 금기로 인해 내면화된 자아 억압”에서도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억압의 정점으로 여겨지므로 “워크 반란의 궁극적인 표적”이 된다. 따라서 워크주의의 사이비 신들이 사회뿐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뒤틀린 성향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아이들.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좌파 워크 혁명가들의 주요 표적이다 – 이는 불과 50년 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섬뜩하게 상기시킨다. 크메르 루주의 수법에 따라, 아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유산을 경멸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매슈 케네디(Matthew Kennedy)는 “기독교적 자녀 양육과 공립학교 교육의 위험”에서 이 슬픈 현실을 강조한다.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 체계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적대적인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학교가 후원하는 드래그 쇼,” “성적으로 노골적인 도서관 책들,” 그리고 “미국 역사를 인종 중심으로 재

구성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적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리처즈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잘못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불임을 초래하는 약물과 수술을 시행하여 이 상태를 ‘치료’하고 있다. 이른바 ‘젠더 긍정 의료’는 이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는 지금껏 고안되거나 상상된 것 가운데 인간의 본성 –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 – 에 가해지는 가장 거대한 공격이다”.

설상가상으로, 워크주의 권력자들은 이 불길에 더욱 부채질하려는 듯하다. 베서니 맨델(Bethany Mandel)과 캐럴 마코위츠(Karol Markowicz)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빼앗긴 청춘에서 섬뜩하게 표현했듯이, “학교와 의료·정신의학 기관 및 언론에서 권력을 가진 성인들이 불에 장작을 던지고 있다. 이는 자해하는 소녀에게 칼을 건네면서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하거나, 섭식 장애로 힘들어하는 소녀에게 그 청바지를 입으니 정말 똥똥해 보이므로 몇 파운드를 빼기 위해 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5) 사실상 이른바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을 평생 환자로 만들 것이 확실한 의료계의 돈벌이 잔치에서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 “이는 미친 과학자들이 무력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공포 영화와 같지만, 그 희생자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6) 우리 아이들이다! 갈수록 워크화되는 서구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들이다.

극단주의. 워크 혁명가들이 무엇인가를 즐긴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극단주의이다. 아이들은 교육 과정의 초기부터 젠더 유니콘을 접한다 – 겉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캐릭터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주관적인 성별 선택 과정으로 이끌면서 기본적인 생물학을 교묘하게 무너뜨린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법을 더욱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미교육협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시스헤테로가부장제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1619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거짓된 이야기들을 회원들에게 쏟아 냈다. (7) 이러한 극단주의에 더하여, 미국도서관협회는 “퀴어 포용적 초등학교 도서관 프로그램 만들기,’ ‘레즈비언 펄프 픽션 컬렉션을 위한 온라인 창구 개발하기,’ 그리고 ‘이야기 들려주기, 경계 확장하기: 도서관에서의 드래그 퀸 이야기 시간.”을 비롯하여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들을 제공한다. (8) 한편 출판사들도 음란물을 팔아대며 이러한 광신에 가세했다. 예를 들어, 라이언 포지는 이제 마이아 코바베(Maia Kobabe)의 젠더 퀴어와 같은 충격적인 쓰레기를 판매하고 있다(그 책의 변태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묘사하기에는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9) 단지 외설물을 팔아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교육계의 극단주의자들은 닥터 수스(Dr. Seuss)의 모자 쓴 고양이부터 하퍼 리(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에 이르는 고전들을 금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10)

교육의 극단주의에 더하여 환경 산업에서도 극단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퀴어의 여왕인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는 환경 극단주의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9년 1월 21일, 그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세상은 12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11) 전직 미국 부통령에서 지구 온난화 전문가로 변신한 앨 고어(Al Gore)

도 똑같이 극단적이다. 그는 “지구 온난화”를 우리 행성이 직면한 가장 큰 단 하나의 위협으로 규정할 정도로 극단적이다. 자신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홍보하면서, 그는 지구가 2016년이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는 명백히 편리한 거짓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과 수치를 조작했다. (12) 그런데도 보스턴 글로브의 엘런 굿먼(Ellen Goodman)은 그러한 극단적 선전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과 동일시한다. (13) 저명한 침례교 목사 올리버 “버즈” 토머스(Oliver “Buzz” Thomas)는 한술 더 떠 극단적인 환경 전망을 고려해 신자들에게 자녀 수를 줄이라고 촉구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을 맹비난한다. 토머스는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성직자들은 이런 시대에 두 명보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4)

이 모든 목소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십 대 환경 극단주의자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만큼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된 것이다. 워크 전사들은 정치적 올바름이 지배하는 우리 문화에서 아이를 지적으로 비판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아이들을 자신들의 극단주의 의제에 동원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 (15) 특히 유엔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고,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2019)이 되었으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여러 차례 지명된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그레타가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선언하고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질책으로 발언을 끝맺었을 때, (16) 논쟁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리처즈가 언젠가 재치 있게 말했듯이, 회의론이 “앨고어 행성의 해수면”만큼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7) 사람들이 워크 전사들이 “가정법을 채굴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은 “실현되지 않은 각각의 사례 속에 묻힌 위협의 씨앗을 키우는 데” 능숙해졌다. (18) 우리가 “과학적 합의”와 같은 진부한 명칭을 건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버드대학교 박사 다리오 페르난데스모레라(Darío Fernández-Morera)가 현명하게 조언했듯이, 우리는 언제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유인”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이익과 유인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연구에 과학자들의 연구 못지않게, 어쩌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이는 심리학자들이 ‘동기화된 맹목’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불편한 자료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로막는다. 어쩌면 ‘지식인들의 순진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단지 여러 대학 교수의 부실한 연구를 많은 언론인이 되풀이한 결과일 수도 있다.”(19) 동기가 무엇이든, 환경 극단주의에 맞서 분별력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 환경의 극단주의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매체들도 이제 극단주의를 즐기고 있다. 디즈니, 카툰 네트워크, 니켈로디언 같은 매체들은 힘을 합쳐 워크 서사를 상상할 수 없는 극단으로 끌고 갔다. “4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디즈니 주니어 시리즈 머펫 베이비에서는 등장인물 가운데 하

나인 곤조가 무도회용 드레스를 입고 ‘곤조렐라’로 변신했다.”(20) 카툰 네트워크는 뻔뻔스럽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21) 니켈로디언도 거리낌 없이 “미국의 드래그 퀸이자 활동가인 니나 웨스트(Nina West)가 이끄는 애니메이션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방영했다.”(22) 맨델과 마코위츠는 미키와 스콜라ستيك이 워크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의 장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아 온 가장 건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디즈니]가 어떻게 완전히 탈선하게 되었는가?”(23)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Aleksandr Solzhenitsyn)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에 관해 논평하면서 잊을 수 없는 답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24)

NOTES

1. Karl Marx, introduction to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1844), trans. Annette Jolin and Joseph O'Malle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71.
2. “Woke,”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accessed April 20, 2023,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woke>.
3. Bruce Goldman, “Two Minds: The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Neurobiology*, May 22, 2017, <https://stanmed.stanford.edu/how-mens-and-womens-brains-are-different/>.
4. Marx,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171.
5. Bethany Mandel and Karol Markowicz, *Stolen Youth: How Radicals Are Erasing Innocence and Indoctrinating a Generation* (Nashville: DW Books, 2023), 167, emphasis added.
6.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81.
7. See “New Business Item 39,”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July 5, 2021, <https://web.archive.org/web/20210705234008/https://ra.nea.org/business-item/2021-nbi-039>; thanks to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85, for this reference.
8. Joy Pullmann, “21,400 Attend Library Conference Featuring Workshops on Drag Queens and Queering Elementary Schools,” *The Federalist*, July 10, 2019, <https://thefederalist.com/2019/07/10/21460-librarians-attend-major-conference-featuring-workshops-drag-queens-queering-elementary-schools/>; thanks to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09, for this reference.
9. See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19.
10. See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13 - 14.
11. William Cummings, “‘The World Is Going to End in 12 Years If We Don’t Address Climate Change,’ Ocasio-Cortez Says,” *USA Today*, January 22, 2019,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onpolitics/2019/01/22/ocasio-cortez-climate-change-alarm/2642481002/>.

12. David Germain, "2006: Al Gore Does Sundance," CBS News, January 26, 2006,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onpolitics/2019/01/22/ocasio-cortez-climate-change-alarm/2642481002/>.
13. Ellen Goodman, "No Change in Political Climate," Boston Globe, February 9, 2007, https://web.archive.org/web/20070211191129/www.boston.com/news/globe/editorial_opinion/oped/articles/2007/02/09/no_change_in_political_climate/.
14. Oliver "Buzz" Thomas, "Might Our Religion Be Killing Us?" USA Today, April 21, 2008, <https://web.archive.org/web/20080502110139/https://blogs.usatoday.com/oped/2008/04/might-our-relig.html#more>.
15. See "Child Soldiers," in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6. PBS NewsHour, "WATCH: Greta Thunberg's Full Speech to World Leaders at UN Climate Action Summit," YouTube, September 23, 2019, video, 5:19, <https://youtu.be/KAJsdgTPJpU>.
17. Jay Richards, "When to Doubt a Scientific 'Consensu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arch 16, 2010, <https://www.aei.org/articles/when-to-doubt-a-scientific-consensus/>.
18. In the previous two sentences, I'm adapting and applying these delicious turns of phrase in quotation marks from a different context. Tom Junod, "365 Days to the Apocalypse and We Still Don't Know Where to Hide the Jews...and Other Notes from Pat Robertson's Y2K Conference," *Esquire*, January 1999, 96 - 8.
19. Darío Fernández-Morera, *The Myth of the Andalusian Paradise: Muslims, Christians, and Jews under Islamic Rule in Medieval Spain* (Wilmington, DE: ISI Books, 2016), 4.
20.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28. See Scottie Andrew, "Nonbinary Characters Like 'Gonzo-Rella' Are Lighting Up Children's TV and Encouraging Self-Acceptance," CNN, September 25, 2021, <https://www.cnn.com/2021/09/25/entertainment/gonzorella-nonbinary-childrens-tv-cec/index.html>.
21.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28.
22.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27.
23. Mandel and Markowicz, *Stolen Youth*, 106.
24. "Acceptance Address by Mr. Aleksandr Solzhenitsyn," Templeton Prize, May 10, 1983, <https://www.templetonprize.org/laureate-sub/solzhenitsyn-acceptance-speech/>.